



중국 신세대 농민공(新生代 农民工)의 기본 현황과 특징

황경진 (중국 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노동법 및 노사관계학 박사과정)

■ 머리말

팍스콘 노동자들의 연이은 투신자살 사건, 난하이 파업을 기점으로 중국 전역에 들불처럼 번진 파업물결, 평균 20% 이상 인상된 최저임금기준 등 2010년 한 해 세계의 이목이 급변하는 중국의 노사관계로 집중되었다. ‘노동계약법(劳动合同法)’, ‘취업촉진법(就业促进法)’, ‘노동분쟁조정중재법(劳动争议调解仲裁法)’ 등이 제정 및 시행된 2008년 한 해를 중국 노동법을 발전의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한다면, 2010년은 중국의 노사관계가 개별적 영역에서 집단적 영역으로 변화된 한 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신세대 농민공’이 있다. ‘신세대 농민공’은 농촌호구를 갖고 도시지역 비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1980년 이후 출생한 16세 이상의 농민공을 말한다. 1세대 농민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권리의식이 강한 신세대 농민공이 최근 중국 노동력시장 및 노사관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화전국총공회 신세대 농민공 과제조’가 발표한 ‘신세대 농민공 문제에 관한 연구 보고(关于新生代农民工问题的研究报告)¹⁾’를 중심으로 신세대 농민공의 기본 현황과 특징 등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자세한 내용은 <http://theory.workercn.cn/contentfile/2010/06/21/07133818936091.html>에서 볼 수 있음.

■ 신세대 농민공의 기본 현황

신세대 농민공은 최근 들어 중국 공산당과 정부 및 사회 각계의 광범위한 주목을 받고 있다. 신세대 농민공은 중국경제의 대변혁기인 개혁개방시기에 성장한 세대로 기본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세대 농민공은 전체 이주 농민공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전체 농민공은 2억 3,000만 명이고, 이 가운데 이주 농민공은 1억 5,000만 명 정도이며, 1980년 이후 출생한 16세 이상 30세 이하의 신세대 농민공은 전체 이주 농민공의 61.6%를 차지한다²⁾.

<표 1> 농민공 규모변화 추이

(단위: 만 명, %)

	2008	2009	증감	증감률
농민공 전체 수	22,542	22,978	436	1.9
고향을 떠나 외지에 취업한 농민공 수	14,041	14,533	492	3.5
단신 이주 농민공 수	11,182	11,567	385	3.4
가족동반 이주 농민공 수	2,859	2,966	107	3.7
고향지역에 취업한 농민공 수	8,501	8,445	-56	-0.7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2009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2009年 农民工监测调查报告)」, http://www.stats.gov.cn/tjfx/fxbg/t20100319_402628281.htm

<표 2> 연령대별 농민공 구성비율

(단위: %)

	16~25세	26~30세	31~40세	41~50세	51세 이상
비율	41.6	20.0	22.3	11.9	4.2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2009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2009年 农民工监测调查报告)」, http://www.stats.gov.cn/tjfx/fxbg/t20100319_402628281.htm

2) 중국 국가통계국, 「2009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2009年 农民工监测调查报告)」, http://www.stats.gov.cn/tjfx/fxbg/t20100319_402628281.htm

상술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2009년 중국 신세대 농민공의 규모를 추산해 보면,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은 8,900만 명 정도이다. 고향지역에 취업한 농민공 8,445만 명에 포함된 신세대 농민공을 고려하면, 2009년 신세대 농민공은 약 1억 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이는 신세대 농민공이 전체 농민공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중국 산업노동자의 핵심계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신세대 농민공의 첫 취업연령은 1세대 농민공보다 더 낮아졌다. 광둥성 총공회가 1세대 농민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세대 농민공의 첫 취업연령은 26세였다. 그러나 신세대 농민공 가운데 80後(바링호우)는 평균 18세, 90後(지우링호우)는 16세로 훨씬 더 낮아졌다. 이는 신세대 농민공이 중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농민공의 길로 접어들었고, 동시에 졸업 후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신세대 농민공은 대부분 미혼이다. 2006년 국무원 연구실이 발표한 ‘중국 농민공 조사연구보고(中国农民工调研报告)’에 따르면 당시 농민공 가운데 80% 이상이 기혼자였는데, 총공회 연구실의 2009년 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한 신세대 농민공은 20% 정도였다. 이는 신세대 농민공은 타향에서 일하면서 연애, 결혼, 출산 및 양육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학계 등이 신세대 농민공에 대한 정책을 수립 할 때, 이러한 요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신세대 농민공은 1세대 농민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직업훈련 수준을 가지고 있다. 국가통계국의 ‘2009년 농민공 모니터링 조사보고’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고졸 이상의 신세대 농민공은 30세 이하에서 26%, 이 중 21~25세의 연령대는 31.1%로 전체 농민공보다 7.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직업훈련을 받은 신세대 농민공은 36.9%로 1세대 농민공보다 14% 높았다. 이는 여전히 대부분의 신세대 농민공이 중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필요하지만, 1세대 농민공과 비교하면 이들의 교육 및 직업훈련 수준은 다소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신세대 농민공의 취업업종을 살펴보면, ‘2高 1低’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제조업, 서비스업의 취업이 증가한 반면, 건축업의 취업은 다소 감소했다. 국무원 연구실이 2006년 발표한 ‘중국 농민공 조사연구보고(中国农民工调研报告)’에 따르면, 2004년 농민공의 제조업, 서비스업 및 건축업의 취업은 각각 33.3%, 21.7% 및 22.9%였다. 그러나 국가통계국의 2009년 통계자

료에 따르면, 이들 업종의 취업은 각각 39.1%, 25.5% 및 17.5%로 지난 5년 동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취업비중은 5.8%와 3.8% 증가했지만, 건축업은 5.4% 감소했다. 이는 신세대 농민공은 근무 조건이나 취업조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업종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신세대 농민공은 도시지역의 포래집단과 동일한 성장과정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신세대 농민공은 유년기에 부모를 따라 도시지역으로 이주했거나 농촌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일자리를 찾아 도시지역으로 왔다. 따라서 이들은 농촌보다 도시지역에 더 익숙하다. 설사 농촌에서 출생하고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도시지역 포래집단과 같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 농업생산에 익숙지 않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세대 농민공은 도시에서 출생해 농촌에 토지 등 생산수단이 전혀 없다.

■ 신세대 농민공의 기본 특징

농민공 가운데 새로운 계층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신세대 농민공은 1세대 농민공과 마찬가지로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사회구조로 인해 1세대 농민공과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동시에 개혁 개방과 급속한 사회변천 시기를 배경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1세대 농민공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시대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인격적인 면에서 포래 연령대의 청년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신세대 농민공들의 전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사회 및 경제체제의 변혁기에 태어난 신세대 농민공들은 물질적으로 비교적 풍족한 생활을 했다. 따라서 이들은 수요측면에서 생존보다는 발전을 중시한다. 이들은 도시로의 이주를 자아발전의 경로로 간주하고, 직장선택에 있어서도 임금뿐만이 아닌 미래의 전망을 중시한다. 이들은 또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가치관과 개방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도시문명과 생활방식을 추구하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를 전파하는 역할도 한다.

둘째, 신세대 농민공 대부분이 20대 초반의 젊은이로 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부단히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외지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관념도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 있고, 대다수 문제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들은 자신감은 넘치지만, 사회 초년생으로 직업발전상의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다.

셋째, 신세대 농민공은 농촌인에서 도시인으로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에 처해있으면서 노동자와 농민이라는 이중적 신분을 가지고 있다. 생계수단상으로 보면 이들은 전형적인 노동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도농간의 이원화된 체제의 제약으로 인해 그 신분은 여전히 농민에 속하기 때문에 농민의 자손인 그들이 농민의 특징을 완전히 떨쳐내기란 어려워 보인다.

넷째, 신세대 농민공의 기대치는 그들의 부모세대 보다 높지만 그 인내력은 약하다. 또한 이들은 농업생산활동에 대한 경험이 없는 연유로 전통적인 향토사회에서 주변부에 위치해 있다. 도농으로 이원화된 사회구조에서 비롯된 한계와 낮은 학력과 직업기술 수준으로 인해 도시에서 안정적이고 소득 높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시의 주류사회로도 쉽게 융화되지 못한 채 도시의 하층부에 머물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이들은 주변인의 처지에 놓여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 신세대 농민공의 의식변화

신세대 농민공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1세대 농민공과 다른 의식형태를 보이고 있다.

첫째, 1세대 농민공은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갔지만, 신세대 농민공은 자아발전과 이상추구를 위해 도시로 갔다. 베이징대 사회학과,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학 연구소 그리고 농촌발전연구소가 주장삼각주지역 농민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도시로의 이주 목적을 묻는 질문에 1960년대에 출생한 농민공의 76.2%가 돈을 벌기 위해 왔다고 응답한 반면, 1980년대에 출생한 농민공의 71.4%는 자아발전과 이상추구를 위해 도시로 이주했다고 응답했다³⁾.

둘째, 1세대 농민공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이주했기 때문에 노동권익에 대한 요구가 매우 낮았고, 그들에게 사회보장 및 직업안전, 위생 등에 관한 권익보장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 만이었다. 그러나 신세대 농민공은 노동권익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단순한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넘어 적극적인 권리로서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3) <http://news.sina.com.cn/s/2006-10-12/105710217395s.shtml>

취업시 임금 수준뿐만 아니라 복지대우, 근무조건, 기업이미지 및 장래성 등을 모두 꼼꼼히 살핀다. 이러한 신세대 농민공의 상대적으로 높아진 노동권익에 대한 요구는 높은 이직률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표 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취업업종, 직종 및 기업규모에 대한 더 높은 요구로 표출된다.

셋째, 신세대 농민공은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노동자라고 생각한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세대 농민공 가운데 자신의 사회적 신분을 농민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2.3%로 1세대 농민공에 비해 22.5% 낮았고, 노동자라고 응답한 비율은 32.3%로 1세대 농민공보다 10.3% 높았다. 이러한 현상은 90後(지우링호우) 세대에서 더욱 두드러졌는데, 이들 가운데 34.5%가 자신을 노동자라고 응답한 반면, 11.3%만이 자신을 농민이라고 응답했다. 향후 계획을 묻는 또 다른 조사에서도, 앞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반 이상에 달하고, 소규모 자영업 및 창업을 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7%에 이르는 것과 대조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 농업에 종사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그쳤다(표 4 참조).

<표 3> 신세대, 1세대 농민공의 취업업종, 직종 및 기업규모의 비교

	1세대 농민공	신세대 농민공
취업업종		
제조업	56.4	67.3
건축업	12.3	3.7
서비스업	24.0	26.3
농업	5.4	1.0
취업직종		
보통 근로자 또는 업무지원서비스	54.2	46.2
문서담당 또는 품질검사원	2.6	9.7
서비스업 종업원	3.8	10.8
기업규모		
100인 이하	40	33.3
101~1,000인 이하	39.6	38.2
1,001인 이상	20.4	28.5

자료 : 공인일보(工人日报) (2010. 6. 21), 「关于新生代农民工问题的研究报告」.

〈표 4〉 신세대, 1세대 농민공의 향후 발전계획

	1세대 농민공	신세대 농민공
농업	11.0	1.4
소규모 자영업 및 창업	17.9	27.0
도시에서 취업	57.1	50.0

자료 : 공인일보(工人日报) (2010. 6. 21), 「关于新生代农民工问题的研究报告」.

넷째, 1세대 농민공과 달리 신세대 농민공은 취업지인 도시지역의 일원으로 융화되기를 희망한다. 1999년 칭화대학(清华大学)이 농민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89.7%의 농민공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응답했고, 취업지에 정착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3%에 불과했다. 반면 중국 청소년연구센터가 발표한 '신세대 농민공 연구보고'에 따르면, 신세대 농민공 가운데 55.9%가 취업지인 도시에 정착하길 희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세대 농민공은 1세대 농민공과 달리 높은 평등의식과 권리보호의식을 가지고 있고, 권리보호의 방식 또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조사보고에 따르면,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신세대 농민공의 비율은 6.5%로 동일한 응답을 한 1세대 농민공 응답자의 절반 수준이었고, 신고방식으로는 '집단 신고방식'을 선택한다고 응답한 신세대 농민공이 45.5%로 1세대 농민공의 응답률 17.6%와 비교해 높은 차이를 보였다.

■ 신세대 농민공이 직면한 문제

신세대 농민공들 또한 전체 농민공의 일부로서 1세대 농민공과 마찬가지로 임금체불, 낮은 노동계약 체결률, 사회보험에서의 배제 등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1세대 농민공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세대 농민공이 당면한 문제 또한 다 음과 같은 특수성을 띤다.

첫째, 높은 주택가격과 방세는 신세대 농민공들이 취업지인 도시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하고

생활하는 데 영향을 주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주요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고, 농민공이 많이 있는 동부연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1㎡당 5,000위안 내외로 이는 신세대 농민공 1인이 석 달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해야 가질 수 있는 돈이다⁴⁾. 농민공의 임금수준이 너무 낮고, 임금인상 속도가 물가상승 속도에 비해 현저히 더딘 것으로 보아 주택구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신세대 농민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도시지역의 노동수요에 못 미치는 교육 및 직업기술 수준은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에서 장기간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데 있어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 노동력시장넷의 발표에 따르면,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 도시지역 노동력시장에서 고졸 이상 학력자에 대한 노동수요는 전체 수요의 60.2%를 차지하고 있고, 중졸 이하 학력자에 대한 노동수요는 26.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신세대 농민공 가운데 고졸 이상의 학력자는 30%에 불과하다.

<표 5> 2009년 학력별 노동력수급 상황

(단위 : 명, %)

교육수준/시기	노동수요		노동공급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중졸 이하	5,619,502	26.8	6,429,085	28.0
고졸	8,019,619	38.4	9,707,972	42.3
직업고, 기술고, 중등전문학교	4,535,839	56.6	5,400,761	55.6
전문대졸	3,085,889	14.7	4,456,014	19.4
대졸	1,424,848	6.8	2,248,907	9.8
석사 이상	53,369	0.3	88,678	0.4
무요구*	2,730,074	13.0	-	-
전 체	20,933,301	100	22,930,656	100

주 : * 노동수요의 무요구 13.0%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학력무관이라고 표시한 경우를 의미함.

자료 : 중국노동력시장넷, 「2009년 전국 일부도시 공공취업서비스기구 시장수급상황 분석(2009年度全国部分城市公共就业服务机构市场供求状况分析)」, http://www.lm.gov.cn/gb/data/2010-02/21/content_350201.htm

4) 중국인민대학의 연구팀이 전국 28개 성(省) 1,595명의 신세대 농민공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9년 신세대 농민공의 월평균 임금은 1,728위안으로 나타났음. <http://finance.ifeng.com/news/special/xinshengdai/20100406/2010750.shtml>

또한 노동력시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노동수요는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이수했고, 일정한 전공기술을 가진 중등전문학교, 직업고등학교 및 기술학교 졸업자로 전체 노동수요의 56.6%나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신세대 농민공은 단 20%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신세대 농민공의 학력과 직업기술 수준이 노동력시장의 수요보다 빨리 향상되지 않는다면, 30%의 신세대 농민공만이 도시에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시와 농촌으로 이원화된 호구제도의 제약으로 인해 자녀교육 및 사회보장 등의 기본적인 공공수요 충족이 어렵다. '중국 유동인구 모니터링 보고'에 따르면, 2009년 농촌유동인구 자녀 가운데 70.2%가 부모를 따라 도시로 이주했다. 그러나 농민공 자녀의 도시학교 입학 문턱은 여전히 매우 높다. 2008년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농민공 자녀의 도시지역 공립학교 입학률은 베이징 63%, 상하이 49%, 광저우 34.4%, 미취학 아동의 비율은 각각 3.8%, 3.6%, 7.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민공 자녀들은 잦은 이사와 전학 등의 원인으로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대 농민공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들의 교육문제는 이들이 도시에서 안정적인 취업과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 맺음말

중국의 압축식 경제성장과 국유기업 고용제도의 개혁이 진척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노사관계는 대단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농민공이 중국 노사관계의 핵심주체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즉 전통적인 노동자 계층인 도시지역 노동자보다 농민공의 수가 많아졌다. 중국 내 각종 통계자료를 근거로 보수적으로 추산해도 농민공은 전체 근로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신세대 농민공이 농민공의 주요 구성부분이자 중국 산업노동자의 주체로 자리 매김했다. 이들은 1세대 농민공과 구별되는 새로운 특징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신세대 농민공 문제를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도농간의 이원화된 사회구조와 중국식 경제성장이 불러온 폐단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LI**